

공공도서관 장서의 포화에 관한 사례 연구

Case Study on Collection Saturation of Public Library

김 흥 렬(Hong-Ryul Kim)*

〈목 차〉

- | | |
|----------------|---------------------------|
| I. 서론 | 3. 장서의 포화도 측정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III. 장서의 포화도 감소를 위한 대출 분석 |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 출판연도별 대출현황 분석 |
| 3. 선행연구 | 2.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비율 분석 |
| II. 장서의 포화도 측정 | 3. 이용 반감기 산출 |
| 1. 연구의 방법 | 4. 시사점 및 제언 |
| 2. 적정자료공간의 산출 | IV.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자료이용공간 내 장서포화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별 장서포화상태를 측정하여 장서포화의 상태와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장서포화도를 측정하여 장서포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장서포화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키워드: 장서포화, 공공도서관, 자료 공간, 적정 장서, 장서 폐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saturation of the collection in public library and to propose a solution to this problem.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one local government was selected to measure the collection saturation status of each library and to clarify the cause of collection satura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the public library in Korea measures the degree of collection saturation and recognizes the seriousness of collection saturation, and suggests the task of identifying the cause of collection saturation and solving it.

Keywords: Collection saturation, Public library, Collection space, Proper collection, Collection disposal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hykim505@jj.ac.kr)

•논문접수: 2019년 8월 15일 •최초심사: 2019년 8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9월 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49-69,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9.4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공공도서관이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그리고 지역의 문화거점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되어 시행에 들어간 제3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비전과 3대 핵심가치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가치로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도서관 공간을 장서중심에서 사람과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공공도서관은 장서의 포화에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장서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모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한때 숨 쉴 틈 없이 뻗뻗한 장서로 점령당한 도서관 모습에서 흐뭇해하던 시대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의 환경은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사람중심으로 그리고 서비스중심으로 변화하고 확대함에 따라 도서관 공간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서로 점령당한 자료이용공간과 복도 등으로 구성된 공유공간의 통합을 통해 일체형 공간으로 혁신하는 도서관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이용공간 내 장서의 포화 상태는 이러한 변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도서관이용환경과 열람환경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서관내 자료이용공간의 변화를 시도하고 주민친화적 공간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의 포화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자료이용공간 내 장서포화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별 장서포화상태를 측정하여 장서포화의 상태와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장서포화도를 측정하여 장서포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장서포화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공공도서관의 장서 포화도를 측정하고 장서포화의 원인을 밝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수

행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16)에 기반한 도서관 전체 연면적 대비 적정자료이용공간과 적정장서수를 산출한다. 이를 현재 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이용공간 및 소장 장서와 비교하여 자료이용공간의 적정성과 장서의 포화정도를 측정한다.

둘째, 장서의 이관 및 폐기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판연도별 자료이용공간에 배가된 장서의 대출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자료이용공간내의 출판연도별 소장비율과 대출비율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출판연도별 대출현황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평균 반감기를 산출하고, 일반자료와 어린이자료의 장서이용 반감기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자료의 이용공간의 문제, 장서의 포화 정도를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밝힌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수행방법으로는 모든 공공도서관의 장서포화도를 단기간에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서의 포화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5개 이상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개관한지 10년 미만, 10년, 20년, 30년 경과한 도서관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장서의 포화도와 이용 반감기는 도서관 개관연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장서의 포화정도는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자료이용공간에 필요한 적정 장서수와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건립운영 시 표준처럼 활용되고 있는 지침서이다. 다만, 본 연구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현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장서의 포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CI(한국인용색인)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 이들 논문의 대부분은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과 관리, 폐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서의 포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장서포화에 대한 연구는 아니나, 공공도서관 장서개발과 관리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희운(2009)은 고전적 장서개발의 정론이 직면하는 한계를 분석하고 디지털 오디세이의 신화를 논의한 다음에 미래 장서개발의 노선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요구중심의 선택론이 초래하는 장서의 질적 피폐화, 예산 및 인력의 부족에도 고수하는 자급자족형 장서개발의 논리, 계획문서인 동시에 실무준거인 장서개발정책의 부재, 이용통계와 장서개발의 연계성 부족 등이 고전적 정론의 한계로 간주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고, 장서와 공공도서관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거시적,

종합적 이해와 모든 공공도서관은 최적의 아날로그 장서개발과 공공성 강화를 장서개발의 기본노선으로 설정하는 등 장서개발의 새로운 노선과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지연(2009)은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 지침은 세부적으로 일부 이용자와 관련하여 명시하기 쉬운 업무를 위주로 성문화된 지침을 가진 곳이 많았으나 포괄적으로 장서관리를 다루는 체계적인 장서관리 지침이 마련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진경 등(2011)도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구립 공공도서관 10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장서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구립 공공도서관을 위한 장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선에 등(2009)은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장서의 주제별, 연령별 소장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소장자료의 주제별, 연령별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 장서의 주제별 분포와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장서의 최신성은 비교적 우수하였으며, 2000년 이후 발간자료의 소장비율이 전체 자료의 64.9%를 차지하였다. 조윤희(2011)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장서 폐기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장서 폐기 기준과 현황, 처리 방안을 기반으로 장서 폐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도서관 연면적이 작은 구립 공공도서관들을 중심으로 개관 후 수년이 지나면 증가하는 장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서가 공간 부족으로 인해 장서를 폐기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장서폐기에 대한 김희환(2015)의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관리와 폐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실제적인 측면에서 장서폐기 연구를 수행하였다. 폐기장서는 오·훼손의 상태가 심한 것을 폐기대상으로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였고, 제적된 장서를 보관하는 보존서고는 거의 없었으며, 소각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장서폐기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도의 측면에서는 장서폐기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며, 장서폐기에 대한 장점으로 서고의 공간 확보가 가장 언급이 많았고, 자료의 보존관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장서개발과 관리, 폐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서의 포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포화에 대한 사례연구가 장서포화와 공간부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향후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 자리매김하는데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장서의 포화도 측정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대한 장서의 포화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의 도구는 공공도서관의 전체 연면적에서 자료이용공간(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의 면적을 산출한 후, 이들 면적에 적절한 적정장서수를 산출하여 현재 소장한 장서수와 비교하여 자료이용공간 내 장서의 포화상태를 측정하였다. 적정장서수의 산출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¹⁾에서 제시한 장서 산출 공식을 활용하였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표 1> 공공도서관 적정 장서산출 공식

자료이용공간	산출공식
종합자료실	자료실연면적(㎡) x 0.4 x 170권
어린이자료실	자료실연면적(㎡) x 0.35 x 120권

<6단서가 기준>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의 인구가 42만명인 K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K지방자치단체는 현재 5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개관을 건립 중에 있다. K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 이유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운영평가 후속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어 공공도서관 운영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환경의 개선, 인력과 조직의 확충 등에 긍정적 방향으로 전반적인 검토와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K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 장서의 포화도가 매우 심각하였으며, 공간의 활용성이 떨어져 도서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K지방자치단체의 5개 공공도서관들이 안고 있는 장서포화도의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장서의 포화도 문제를 제기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알파벳으로 나열하여 표기하였다.

2. 적정자료이용공간의 산출

적정자료이용공간은 도서관의 전체 연면적에서 자료이용공간이 차지하는 적정 비율을 말한다. 이 적정비율은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 연면적별 적정자료 이용공간 비율을 참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면적별 적정자료이용공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국내 공공도서관의 건립운영에 참조하기 위하여 제작한 지침서임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3호)

<표 2> 도서관 연면적별 적정 자료이용공간의 비율

도서관 연면적(m ²)	자료이용공간	비율(%)
264~1,500	일반자료	32
	어린이자료	21.5
1,500~2,500	일반자료	28.5
	어린이자료	18.2
2,500~3,500	일반자료	23
	어린이자료	18.2
3,500~5,500	일반자료	20.5
	어린이자료	11.7
5,500이상	일반자료	19.3
	어린이자료	10.4

<도시형 공공도서관 기준>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K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공공도서관의 적정 자료이용 공간을 산출하였다. 그 산출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별 연면적에 따른 적정 자료이용공간 면적 산출

도서관명	연면적	적정자료이용공간		
		실명	비율	적정면적
A도서관	8,395m ²	일반자료	19.3%	1,620m ²
		어린이	10.4%	873m ²
		합계	29.7%	2,493m ²
B도서관	5,069m ²	일반자료	20.5%	1,039m ²
		어린이	11.7%	593m ²
		합계	32.2%	1,632m ²
C도서관	3,716m ²	일반자료	20.5%	761m ²
		어린이	11.7%	435m ²
		합계	32.2%	1,196m ²
D도서관	4,826m ²	일반자료	20.5%	989m ²
		어린이	11.7%	565m ²
		합계	32.2%	1,554m ²
E도서관	2,942m ²	일반자료	20.5%	603m ²
		어린이	11.7%	344m ²
		합계	32.2%	747m ²

[참고: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16]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에서 제시한 산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K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공공도서관의 적정 자료이용공간의 면적을 보면, A도서관은 전체 연면적이 8,395m²로 매우 큰 대형도서관으로서 적정 일반자료 공간은 1,620m², 어린이자료 공간은 873m²로 산출되었다. B도서관은 전체 연면적이 5,069m²로 적정 일반자료공간은 1,039m²,

어린이자료공간은 593㎡, C도서관은 전체 연면적 3,716㎡에 적정 일반자료공간은 761㎡, 어린이자료공간은 435㎡, D도서관은 전체 4,826㎡에 적정 일반자료공간은 989㎡, 어린이자료공간은 565㎡, E도서관은 2,942㎡에 적정 일반자료공간은 603㎡, 어린이자료공간은 344㎡로 각각 산출되었다.

이를 실제 각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이용공간면적과 비교하여 자료이용공간의 과잉 및 부족현상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적정 자료이용공간 면적과 도서관별 실제 자료이용공간 면적의 비교

도서관명	연면적	실명	자료이용공간			
			적정		실제	
			면적	비율	면적	비율
A도서관	8,395㎡	일반자료	1,620㎡	19.3%	954㎡	11.4%
		어린이	873㎡	10.4%	334㎡	4.0%
		합계	2,493㎡	29.7%	1,288㎡	15.4%
B도서관	5,069㎡	일반자료	1,039㎡	20.5%	132㎡	2.6%
		어린이	593㎡	11.7%	180㎡	3.6%
		합계	1,632㎡	32.2%	312㎡	6.2%
C도서관	3,716㎡	일반자료	761㎡	20.5%	456㎡	12.3%
		어린이	435㎡	11.7%	296㎡	8.0%
		합계	1,196㎡	32.2%	752㎡	20.3%
D도서관	4,826㎡	일반자료	989㎡	20.5%	529㎡	11.0%
		어린이	565㎡	11.7%	547㎡	11.3%
		합계	1,554㎡	32.2%	1,076㎡	22.3%
E도서관	2,942㎡	일반자료	603㎡	20.5%	298㎡	10.1%
		어린이	344㎡	11.7%	119㎡	4.0%
		합계	747㎡	32.2%	417㎡	14.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적정 자료이용공간 대비 실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도서관은 적정 자료이용공간(일반자료 및 어린이자료공간의 합)의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9.7%인데 비하여 실제 사용면적은 15.4%밖에 되지 못하였다. B도서관에서도 적정 자료이용공간의 면적이 32.2%인데 비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심각한 장서의 포화도를 유발할 수 있다. C도서관은 적정 자료이용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32.2%인데 비하여 실제 사용면적은 20.3%, D도서관은 적정 자료이용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32.2%인데 비하여 실제 사용면적은 22.3%, E도서관은 적정 자료이용공간의 비율이 32.2%인데 비하여 실제 사용면적은 14.1%로 나타났다. K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5개 공공도서관 전부 적정 자료이용공간의 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자료이용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도서관, E도서관, A도서관은 매우 심각한 장서의 포화도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장서의 포화도 측정

K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장서의 포화도를 측정하였다. 장서의 포화도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장서 산출공식과 최대장서 산출공식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 적정장서 산출공식 : (일반자료) 면적 X 0.4 X 170권
 (어린이자료) 면적 X 0.35 X 120권
- 최대장서 산출공식 : 적정장서수 X 1.2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별 적정 자료이용공간 면적에 따른 적정장서와 최대장서를 산출하여 현재 각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수와 비교하여 장서의 포화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도서관별 적정 자료이용공간 면적에 따른 적정장서와 최대장서를 산출하였다. 이는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도서관별 적정면적에 따른 적정장서 및 최대 장서 산출

도서관명	연면적	적정자료 이용 공간			
		실명	적정면적	적정장서	최대장서
A도서관	8,395㎡	일반자료	1,620㎡	110,160권	132,192권
		어린이	873㎡	68,094권	81,094권
		합계	2,493㎡	178,254권	213,286권
B도서관	5,069㎡	일반자료	1,039㎡	70,652권	84,782권
		어린이	593㎡	24,906권	29,887권
		합계	1,632㎡	95,558권	114,669권
C도서관	3,716㎡	일반자료	761㎡	51,748권	62,097권
		어린이	435㎡	18,270권	21,924권
		합계	1,196㎡	70,018권	84,021권
D도서관	4,826㎡	일반자료	989㎡	67,252권	80,702권
		어린이	565㎡	23,730권	28,476권
		합계	1,554㎡	90,982권	109,178권
E도서관	2,942㎡	일반자료	603㎡	41,004권	49,204권
		어린이	344㎡	14,448권	17,337권
		합계	747㎡	55,452권	66,541권

위 표에 따르면 A도서관의 적정 자료이용공간 면적에 맞는 적정 장서수는 178,254권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일반자료와 어린이자료로 분리하면 각각 110,160권과 68,094권으로 나타났다. B도서관은 적정장서수가 95,558권으로 나타났고, C도서관은 70,018권, D도서관은 90,982권, E도서관은 55,452권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서관의 적정 자료이용공간에 알맞은 최대 장서수는 적정장서수의 약 1.2배를 감안하면 된다. 이 최대장서수는 도서관이 적정 장

료이용공간 내에서 소장할 수 있는 최대의 장서수를 말한다.

가.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별 소장장서와 적정장서 그리고 최대장서와의 비교

먼저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서와 앞에서 산출한 적정장서 및 최대장서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의 장서의 포화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의 소장장서와 적정/최대장서와의 비교(장서포화도 측정 1)

도서관명	연면적	구분	소장장서	적정자료공간	
				적정장서	최대장서
A도서관	8,395㎡	일반자료	165,991권	110,160권	132,192권
		어린이	81,196권	68,094권	81,094권
		합계	247,187권	178,254권	213,286권
B도서관	5,069㎡	일반자료	102,530권	70,652권	84,782권
		어린이	47,855권	24,906권	29,887권
		합계	150,385권	95,558권	114,669권
C도서관	3,716㎡	일반자료	47,726권	51,748권	62,097권
		어린이	40,138권	18,270권	21,924권
		합계	87,864권	70,018권	84,021권
D도서관	4,826㎡	일반자료	64,599권	67,252권	80,702권
		어린이	68,795권	23,730권	28,476권
		합계	133,394권	90,982권	109,178권
E도서관	2,942㎡	일반자료	88,457권	41,004권	49,204권
		어린이	38,280권	14,448권	17,337권
		합계	126,737권	55,452권	66,541권
합계			745,567권	490,264권	587,695권

위의 표에서와 같이, A도서관은 178,254권이 적정한 장서수인데 비하여 실제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247,187권으로 68,933권을 초과하여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도서관은 적정장서수 보다 54,827권을 더 소장하고 있었으며, C도서관도 또한 17,846권을 초과하여 소장하고 있었고, D도서관은 42,412권을, E도서관은 71,285권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E도서관, A도서관, B도서관, D도서관, C도서관의 순으로 포화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K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보면 257,303권을 초과하여 소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도서관 열람 환경은 매우 열악해질 수 있으며, 다른 공간으로의 활용도도 매우 낮아질 수 있다.

나. K지방자치단체 실제 사용 면적에 따른 적정장서와 소장 장서와의 비교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의 자료이용공간에 해당하는 적정장서수는 다음의 표와 같이 현저히 낮게 산출된다.

〈표 7〉 K지방자치단체 실제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적정장서량 및 최대장서량

도서관명	연면적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 장서수			
		실명	실제면적	적정장서	최대장서
A도서관	8,395㎡	일반자료	954㎡	64,872권	77,846권
		어린이	334㎡	14,028권	16,834권
		합계	1,288㎡	78,900권	94,680권
B도서관	5,069㎡	일반자료	132㎡	8,976권	10,771권
		어린이	180㎡	7,560권	9,072권
		합계	312㎡	16,536권	19,843권
C도서관	3,716㎡	일반자료	456㎡	31,008권	37,209권
		어린이	296㎡	12,432권	14,918권
		합계	752㎡	43,440권	52,127권
D도서관	4,826㎡	일반자료	529㎡	35,972권	43,166권
		어린이	547㎡	22,974권	27,569권
		합계	1,076㎡	58,946권	70,735권
E도서관	2,942㎡	일반자료	298㎡	20,264권	24,317권
		어린이	119㎡	4,998권	5,998권
		합계	417㎡	25,262권	30,315권

위의 표에서처럼 A도서관은 실제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적정 장서수는 78,900권이었으며, B도서관은 16,536권, C도서관은 43,440권, D도서관은 58,946권, E도서관은 25,262권으로 분석되었다. 즉 A도서관은 현재 사용하는 자료이용공간의 면적에 78,900권의 장서가 적정이지만, 실제로는 247,187권을 소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A도서관의 실제 168,287권을 초과하여 소장하고 있어 장서의 포화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각 도서관별 실제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장서수와 현재 소장 장서수를 비교한 것이다.

B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료이용공간의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장서수는 16,536권인데 비하여 실제로는 150,385권을 소장하고 있어 133,849권을 초과하여 소장하고 있어 장서의 포화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한다. B도서관은 도서관의 전체 연면적은 넓은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료이용공간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장서의 포화가 더욱 악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동일하게 C도서관은 현재 44,424권, D도서관은 74,448권, E도서관은 101,475권을 초과하여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장서의 포화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서의 포화도가 악화되면 이용자의 도서관이용 및 열람환경을 악화시키며,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잠식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의 활성화와 이용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서의 포화도가 악화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장서의 포화도를 감소시켜 도서관의 이용과 열람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자료이용공간에 배가되어 있는 장서의 이관과 폐기 및 제적 작업을 추진해야

<표 8> K지방자치단체 실제 사용 면적에 따른 적정장서와 소장 장서와의 비교(장서포화도 측정 2)

도서관명	연면적	실제 자료이용공간대비 적정장서			
		실명	소장 장서	적정장서	최대장서
A도서관	8,395㎡	일반자료	165,991권	64,872	77,846
		어린이	81,196권	14,028	16,834
		합계	247,187권	78,900	94,680
B도서관	5,069㎡	일반자료	102,530권	8,976	10,771
		어린이	47,855권	7,560	9,072
		합계	150,385권	16,536	19,843
C도서관	3,716㎡	일반자료	47,726권	31,008	37,209
		어린이	40,138권	12,432	14,918
		합계	87,864권	43,440	52,127
D도서관	4,826㎡	일반자료	64,599권	35,972	43,166
		어린이	68,795권	22,974	27,569
		합계	133,394권	58,946	70,735
E도서관	2,942㎡	일반자료	88,457권	20,264	24,317
		어린이	38,280권	4,998	5,998
		합계	126,737권	25,262	30,315
합계			745,567권	223,084	267,700

한다. 이러한 작업에 선행하여 다양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료이용공간(일반자료 공간 및 어린이자료공간)에 소장된 장서의 출판연도와 출판연도에 따른 자료의 이용(대출)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장서의 포화도 감소를 위한 대출 추이

1. 출판연도별 대출 추이

먼저 K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의 자료이용공간에 소장된 장서의 출판연도별 대출현황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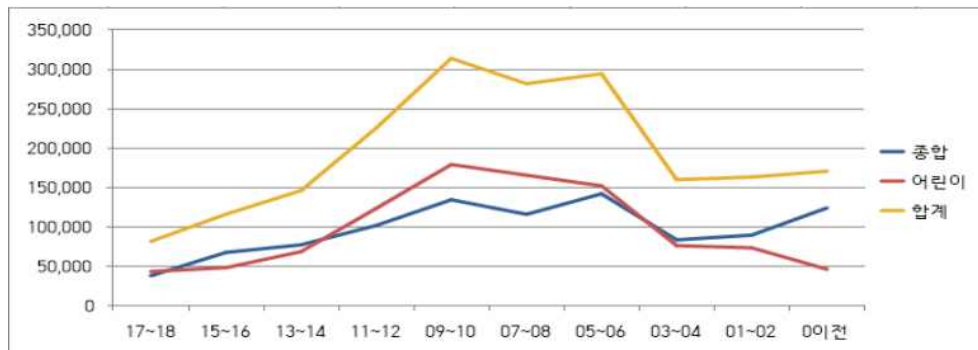
<표 9>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별 2018년 대출현황 추이 분석(연도별 분석)

도서관명		17~18	15~16	13~14	11~12	09~10	07~08	05~06	03~04	01~02	00이전	합계
A 도서관	일반	38,260	67,819	77,449	102,034	134,640	116,143	142,163	83,698	89,772	124,265	851,978
	어린이	43,569	48,472	68,827	123,675	179,334	165,722	152,204	76,438	73,648	46,522	978,411
	합계	81,829	116,291	146,276	225,709	313,974	281,865	294,367	160,136	163,420	170,787	1,830,389
B 도서관	일반	31,750	68,138	60,584	104,047	108,107	88,483	107,303	65,148	65,860	59,860	759,280
	어린이	56,645	68,050	97,256	136,585	181,683	175,261	152,726	65,196	56,491	29,745	1,019,638
	합계	88,395	136,188	157,840	240,632	289,790	263,744	260,029	130,344	122,351	89,605	1,778,918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3호)

C 도서관	일반	16,842	36,924	64,829	123,323	77,586	23,210	11,015	3,154	1,023	543	358,449
	어린이	32,032	35,979	48,544	141,094	150,012	62,344	31,570	7,634	1,963	3,395	514,567
	합계	48,874	72,903	113,373	264,417	227,598	85,554	42,585	10,788	2,986	3,938	873,016
D 도서관	일반	27,361	74,110	86,577	118,638	127,589	135,823	41,488	17,637	19,127	51,797	700,147
	어린이	64,947	83,007	142,301	261,905	305,468	553,634	226,676	92,677	67,688	56,821	1,855,124
	합계	92,308	157,117	228,878	380,543	433,057	689,457	268,164	110,314	86,815	108,618	2,555,271
E 도서관	일반	10,022	25,933	55,855	71,300	70,060	114,618	29,065	9,636	9,649	8,972	405,110
	어린이	17,202	27,038	61,600	68,565	68,975	129,065	58,990	13,177	4,828	3,588	453,028
	합계	27,224	52,971	117,455	139,865	139,035	243,683	88,055	22,813	14,477	12,560	858,138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도서관은 출판된 지 약 9년 이후가 지나면 대출권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자료보다는 어린이 자료가 장서의 이용주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자료는 최신장서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일반자료의 이용(대출) 추이는 출판연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나, 출판된 지 12년이 경과하면 그 이용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그림은 A도서관의 출판연도별 이용(대출)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A도서관의 출판연도별 이용(대출) 현황 추이

2.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비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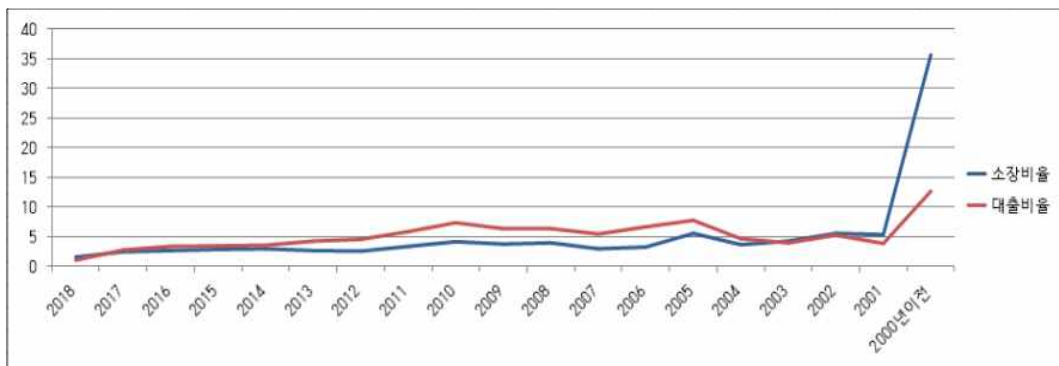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의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소장과 대출의 비율 비교는 출판연도별 장서의 이용 정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중에서 장서의 포화도가 가장 높은 B도서관과 중앙관인 A도서관을 선정하여 각각의 자료실별 소장과 대출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아래는 A도서관의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A도서관 종합자료실은 출판된 지 14년까지의 장서는 소장비율보다는 대출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소장비율보다 대출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출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또한 2000년 이전에 출판된 자료의 소장비율이 35.7%나 되었으나 대출비율은 12.7%로 나타나 대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합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2000년 이전의 장서는 다른 장소(보존서고)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10〉 A도서관 종합자료실의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 비율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2018	1.6	1.1	2009	3.8	6.4
2017	2.5	2.8	2008	4.0	6.4
2016	2.7	3.4	2007	3.0	5.5
2015	2.9	3.5	2006	3.3	6.7
2014	3.0	3.6	2005	5.6	7.8
2013	2.7	4.3	2004	3.7	4.7
2012	2.6	4.6	2003	4.3	4.0
2011	3.4	5.9	2002	5.6	5.3
2010	4.2	7.4	2001	5.4	3.9
			2000년이전	35.7	12.7
			합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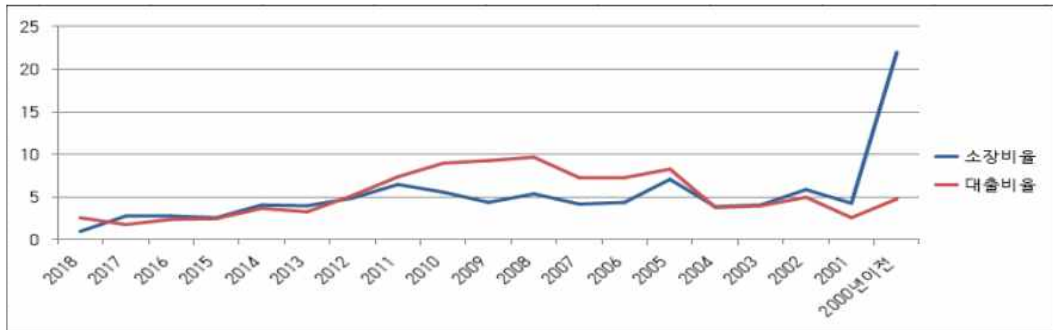


어린 자료실의 경우에도 종합자료실과 마찬가지로 2000년 이전에 출판된 자료의 이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 이전의 자료 소장비율은 22%로 나타나지만 이용은 약 4.8%에 불과하여 자료이용공간만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하거나 폐기하여 자료 이용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B도서관 종합자료실도 A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출판된 지 14년까지의 장서는 소장비율보다는 대출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소장비율보다 대출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전에 출판된 자료의 소장비율이 16.0%이나 대출비율은 7.6%로 나타나 대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도서관은 도서관의 연면적에 비하여 자료이용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협소하여 장서의 포화도가 현저히 높게

〈표 11〉 중앙도서관 : 어린이자료실의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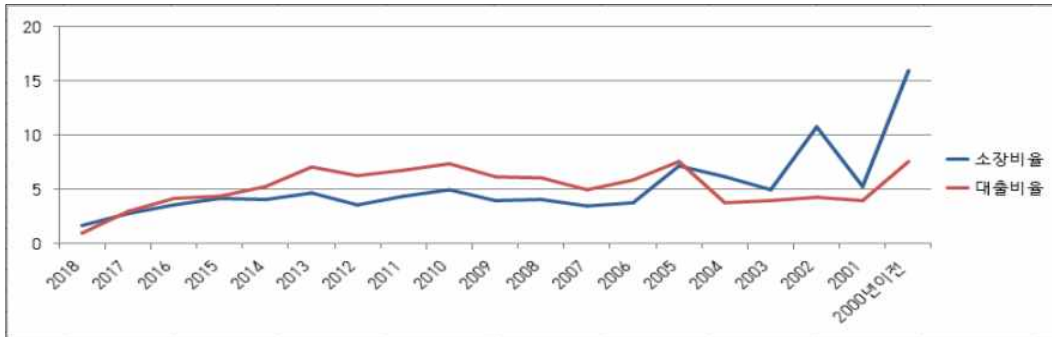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2018	1.0	2.6	2009	4.4	9.3
2017	2.8	1.8	2008	5.4	9.7
2016	2.8	2.4	2007	4.2	7.3
2015	2.6	2.5	2006	4.4	7.3
2014	4.1	3.7	2005	7.1	8.3
2013	4.0	3.3	2004	3.9	3.8
2012	4.9	5.2	2003	4.1	4.0
2011	6.5	7.4	2002	5.9	5.0
2010	5.6	9.0	2001	4.3	2.6
			2000년이전	22.0	4.8
			합계	100.0	100.0



나타나는 도서관으로 2000년 이전 장서의 이전과 폐기뿐만 아니라 자료이용공간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이용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장서의 포화도가 악화되어 자료이용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의 표는 B도서관의 종합자료실의 소장과 대출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 12〉 B도서관 종합자료실의 장서의 소장과 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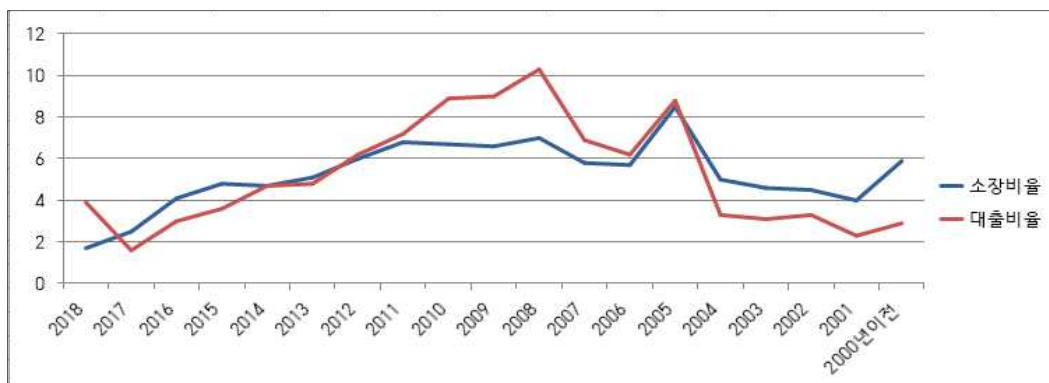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2018	1.7	1.0	2009	4.0	6.2
2017	2.8	3.0	2008	4.1	6.1
2016	3.6	4.2	2007	3.5	5.0
2015	4.2	4.4	2006	3.8	5.9
2014	4.1	5.3	2005	7.2	7.6
2013	4.7	7.1	2004	6.2	3.8
2012	3.6	6.3	2003	5.0	4.0
2011	4.4	6.8	2002	10.8	4.3
2010	5.0	7.4	2001	5.3	4.0
			2000년이전	16.0	7.6
			합계	100.0	100.0



B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의 경우에는 2000년 이전에 출판된 자료의 소장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의 비율은 출판연도가 2004년 이전부터 대출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이 시점 이전의 자료를 이전 또는 폐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표 13〉 B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의 소장과 대출의 비율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출판연도	소장비율	대출비율
2018	1.7	3.9	2009	6.6	9.0
2017	2.5	1.6	2008	7.0	10.3
2016	4.1	3.0	2007	5.8	6.9
2015	4.8	3.6	2006	5.7	6.2
2014	4.7	4.7	2005	8.5	8.8
2013	5.1	4.8	2004	5.0	3.3
2012	6.0	6.2	2003	4.6	3.1
2011	6.8	7.2	2002	4.5	3.3
2010	6.7	8.9	2001	4.0	2.3
			2000년 이전	5.9	2.9
			합계	100.0	100.0



3. 이용 반감기 산출

장서의 이용 반감기는 대출이나 열람을 통하여 이용된 장서들을 출판연도의 순서로 나열하여 이용빈도를 계산하고 최신 이용 장서부터 기산하여 전체 이용빈도에 대한 누적비율이 50% 되는 시기의 값을 말한다. 이러한 장서의 이용반감기는 장서의 폐기나 제거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용측면에서 장서의 최신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K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별 장서이용의 반감기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4〉 K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별 장서이용 반감기

도서관명		반감기
A도서관	일반	9.09
	어린이	9.27
	평균	9.18
B도서관	일반	9.01
	어린이	8.66
	평균	8.84
C도서관	일반	6.12
	어린이	6.99
	평균	6.56
D도서관	일반	7.74
	어린이	9.32
	평균	8.53
E도서관	일반	8.19
	어린이	8.59
	평균	8.39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일반	8.03
	어린이	8.57
	평균	8.30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의 평균 장서이용의 반감기는 8.3년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자료는 8.03년 어린이자료는 8.57년으로 어린이자료의 반감기가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의 자료는 평균적으로 출판된 지 8.3년이 경과하면 장서의 이용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이용가치의 하락이 일어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5개 도서관의 장서이용반감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A도서관의 반감기는 9.18년, B도서관의 반감기는 8.84년, C도서관은 6.56년, D도서관은 8.53년, E도서관은 8.39년으로 나타나 C도서관의 장서 이용반감기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별 반감기가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장서구성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즉 반감기가 가장 짧게 나타나는 C도서관은 개관한지

오래지 않아 구성된 장서의 출판연도가 상대적으로 짧은 비교적 최신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다. 장서의 구성에 따라 반감기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C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의 장서구성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C도서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8.39년~9.18년 사이로 확인된다.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에서 나타난 반감기를 국내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개관연도가 10년 이상인 도서관에서 나타나는 장서 이용의 반감기로 추정할 수 있다.

4. 시사점 및 제언

지금까지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의 장서의 포화도 및 대출현황, 그리고 대출빈도에 따른 이용 반감기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의 장서의 포화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장서가 도서관의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여 도서관 이용환경을 저해하고 공간 활용의 여지를 없애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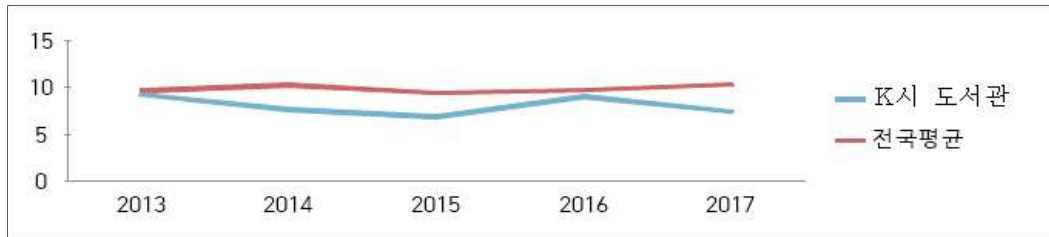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장서포화에 대한 원인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장서포화의 원인은 첫째, 전체 연면적 대비 자료이용공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협소하였다. 이는 장서의 포화도를 가져오는 첫 번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자료이용공간별 적절한 장서확충계획이 설계되지 못하고 있었다. 자료이용공간에 맞는 장서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수집장서와 폐기장서의량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보존서고 등의 이용가치가 낮은 자료를 이관할 제3의 장소나 공간이 부재하였다. 즉 이용가치가 낮은 장서나 복본 등의 장서를 적절하게 서가로부터 제거하여 제3의 장소(지방자치단체 공동보존서고나 지역대표도서관의 보존서고 등)나 보존서고로 이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넷째, 장서폐기 및 제거 규정이 있으나 규정에 입각하여 장서의 폐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었다. 즉 장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으로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힘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시에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 장서의 폐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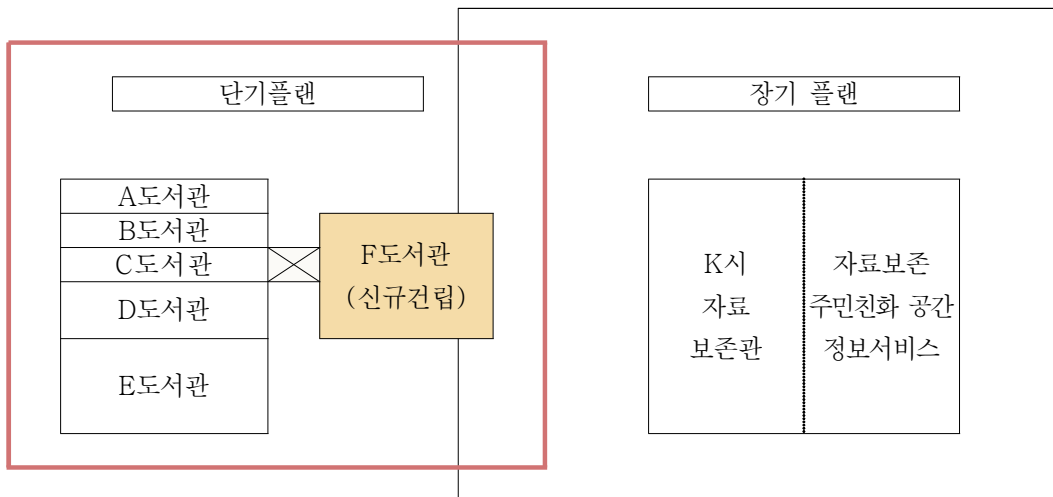
이와 같은 원인에서 발생하는 장서의 포화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그중 하나는 장서이용의 선순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신간 장서를 배가할 공간이 부족하면 장서의 구입을 꺼리게 되고, 양질의 장서와 신간장서의 부족은 독서 인프라를 저해하며, 시민들의 도서관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K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5년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장서구입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전국평균 아래에 머물고 있었으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장서구입비 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자료구입비의 비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K지방자치단체	9.23%	7.65%	6.93%	9.05%	7.45%
전국평균	9.66%	10.29%	9.44%	9.73%	10.31%



공공도서관의 장서의 포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용가치가 낮은 장서의 이관 및 폐기와 더불어 도서관 공간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료이용공간의 확대를 통하여 장서의 배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3의 장소로 장서 이관은 현재 공공도서관들에서 장서의 포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K지방자치단체의 장서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3의 장소로의 이관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 K지방자치단체 자료보존 및 이동의 해결방안

단기플랜으로는 개별도서관의 장서를 신규 건립하는 F도서관(연면적 5,000㎡ 자료보존시설 구비)의 자료보존시설로 이관하여 개별도서관들의 장서 배가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K지방자치단체 자료보존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자료보존관은 자료보존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기능도 일부분 수행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기능까지 고려하는 다기능 다목적 자료보존관으로 건립해야 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장서 포화도 문제를 고민하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의 장서 포화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전체 도서관연면적 대비 장서를 배가하고 이용하는 공간, 즉 자료이용공간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였다. 또한 자료이용공간별 배가될 수 있는 적정장서수를 산출하지 못하여 적정장서수를 초과한 장서를 배가하고 있었다. 동시에 장서의 이관이나 제거한 도서를 보존할 제3의 장소나 공간이 부재하였고 장서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자산이기 때문에 장서를 폐기하는데 주저함이 있었으며, 폐기에 대한 절차가 복잡한 것도 장서포화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둘째, 자료이용공간에 배가된 자료의 대출현황분석에서 출판된 지 12년 이후에는 자료의 이용이 매우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를 기점으로 자료의 폐기나 이관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자료이용공간에 배가된 장서의 출판연도별 소장과 대출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장서의 출판이 약14년이 경과하면 소장비율이 대출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K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의 평균 장서의 이용반감기는 약8.3년으로 나타났고, 일반 자료는 8.03년 어린이자료는 8.57년으로 어린이자료의 반감기가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반감기를 측정할 때, 장서의 구성이 비교적 최신연도로 이루어진 개관한 지 10년 이하의 도서관에서는 장서 이용의 반감기가 짧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장서의 포화도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자료이용공간에 배가된 장서도 이용가치가 낮은 자료, 즉 이용되지 않는 자료가 배가되어 있는 것도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서의 포화도는 열람환경을 악화시켜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장서의 포화도를 감소시켜 열람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도서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 제안한 바를 실천하고 공공도서관이 주민친화적 공간이자 우리 삶을 바꾸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장서의 포화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 김선애, 서혜란. 2009.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현황 분석: 장서의 주제별 분포 및 노후화 현상. 『한국비블리아』, 20(1): 151-164.
- 김희환. 2015. 『공공도서관 장서폐기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세종: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정책건설당 자료집』.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공공도서관건립운영매뉴얼』,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 윤희윤. 2009.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정론과 역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5-22.
- 이지연. 2009.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247-267.
- 이진경, 이지연. 2011. 이용자 장서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22(3): 151-171.
- 조윤희. 2011. 공공도서관 장서폐기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 22(3): 229-24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Yoon-Hee. 2011.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ing Method of Collections Disposal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229-245.
- Gim, Hui Whan. 2015. *A Study on Realities of Book Weeding in Public Librarie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Sun-Ae, Suh, Hye-Ran. 2009. "Examining the Collection of Public Libraries in Terms of Subject and Currenc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151-164.
- Lee, Adrienne, Lee, Jee-Yeon. 2011. "A Study of Collection Development by Analyzing Users' Collection-Use Behavior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151-171.

- Lee, Jee-Yeon. 2009. "Examining the Collection Management Proces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247-26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A manual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or public libraries*.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A Research paper on Library Policy Consulting of Local Government*.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Home Page. <www.libsta.go.kr> [cited 2019. 7. 10].
- President's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9. *The Thir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19~2023)*. Sejong: President's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Yoon, Hee-Yoon. 2009. "Agenda and Paradox of Collection Development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317-346.

